



충청지역
소나무

문화재 석불입상을 보호하는 소나무

✿	✿	
지정번호	서산-8-5-26(38473)	충남 서산시 운산면
지정년도	2005	여미리 15-17
관리기관	서산	36°49 ' 26,16 " N
수령	314년	126 ° 34 ' 26,34 " E
수고	17m	
흉고둘레	2,7m	

석불과 함께 있어 유명해진 보호수(서산-8-5-26) 소나무는 마을로 가는 도로 옆의 동산에 자라고 있다. 커다란 소나무와 석불이 같이 서 있는 조합이 특이하다. 소나무의 나이는 314년으로 추정되나 마을 사람들은 800여 년을 살아 왔다고 믿고 있다. 나무높이는 17m, 가슴높이둘레는 270cm, 밑동둘레는 30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6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3m 정도에서 갈라져 위를 향한 후 위쪽에서 가지가 여러 갈래로 갈라졌다. 생육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소나무의 전설 이야기는 기록이나 구전으로 전하는 것이 없다. 다만 이곳의 소나무는 귀중한 석불(불상)이 오랫동안 안전하게 서 있도록 언덕의 일부를 양보하고 그늘이 되어 주고 있다. 소나무가 석불을 보호하는 셈이다. 석불의 정식 이름은 미륵불의 증거가 없어 그냥 서산여미리 석불입상이다. 여미리석불입상은 1970년대의 용장천 정비사업 때 하천에서 주민이 발견하여 1km 떨어진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이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용장천

냇가에서 5km 정도 거슬러 올라간 상류에 2구의 불상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떠 내려온 것이라고 하나 정확하지는 않다. 이 석불입상은 1989년 12월 29일에 충남 유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되었다. 사다리꼴의 얼굴에 관을 쓰고 여기에 작은 부처를 새겼는데 심하게 닳아 있다. 얼굴 바로 밑에는 3줄로 삼도三道를 표현한 목주름이 있다. 눈은 통통 부은 모습이다. 옷은 왼쪽 어깨에서 걸쳐 내려와 반원 모양을 그리고 있다. 왼손은 치켜들고 오른손은 아래로 받쳐 들고 있다. 석불입상은 전체적인 조각 수법이 형식적이고 입체감이 없어서 고려시대에 지방화된 불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옆과 뒷면에는 거친 못자국이 남았고 목이 부러져 있던 것을 붙인 흔적이 있다. 소나무 바로 인근에 있는 선정묘는 조선 정종의 4남 선성군의 신위를 봉안한 사당이다. 선성군의 사당은 본래 파주에 있었으나 후손이 끊기면서 여미리의 전주이씨 후손들이 제향을 대신 맡고 있다.